

다니엘서 - 번호 138

다니엘서 11장 밝히기: 역사를 통한 예언적 여정

Jeff Pippenger

2024-03-15

다니엘서 11장 40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심오한 구절들 중 하나를 이룬다. 그 안에 제시된 예언적 역사들에서는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바퀴 속의 바퀴가 한데 모인다. 1798년 밀러주의 운동의 종말의 때와 1989년 셋째 천사의 운동의 종말의 때를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내부적 역사와 외부적 역사가 묘사된다. 그 절 안에는 1798년에 첫째 천사와 함께 시작된 다가오는 심판의 선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41절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그러므로 그 절은 죽은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조사심판과 14만 4천의 인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토해 내시는 것까지를 나타낸다.

1798년에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역사로부터, 41절에서 그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의 역사는 그 절에 제시된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 41절 이후는 바로 그 절에서 시작되는 점증하는 하나님의 집행적 심판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예언적 의미에서 40절은 다니엘 11장의 끝이며, 그 장의 1절과 2절은 시작이다. 11장은 적그리스도의 반역을 제시하고, 10장은 히데겔 강 환상의 시작을, 12장은 그 끝을 나타낸다. 10장과 12장은 처음과 마지막을 나타내며, 11장은 그 가운데에 있는 반역이다.

10장과 12장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11장과 달리 이 두 장은 환상과 관련된 다니엘의 체험을 나타내고, 11장은 그 환상 자체이기 때문이다. 10장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11장은 히브리 알파벳의 반역적인 열세 번째 글자이며, 12장은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이다. 히데겔 강 환상은 "진리"이다.

11장에서 처음은 끝을 보여 주는데, 이는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40절에 나타난 마지막 역사는 짐승의 우상의 시험의 때이다. 그 시험의 때는 41절에 나타난 짐승의 표로 끝난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14만 4천의 인치는 때를 다루어야 한다. 그 기간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짐승의 우상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형성될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큰 시험이 되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그것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15권, 15쪽.

항상 끝의 때를 가리키는 두 개의 이정표가 있다. 모세의 개혁 운동에서는 아론의 출생과 3년 뒤 모세의 출생이 그 두 이정표였다. 바벨론에서 나와 성전을 재건하는 개혁 운동에서는 다리오 왕과 그 뒤를 이은 고레스 왕이 그 두 이정표였다. 그리스도의 개혁 운동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6개월 뒤 그리스도의 출생이 그 두 이정표였다. 밀러주의자들의 개혁 운동에서는 1798년 교황권의 몰락과 이어 1799년 교황의 사망이 그 두 이정표였다. 셋째 천사의 개혁 운동에서는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1세 대통령이 그

두 이정표였는데, 둘 다 1989년을 대표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고레스 왕이 언급된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린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는데, 그 일은 참되나 정한 때는 오래였으며,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이상을 이해하였더라. 다니엘 10:1.

10장의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우리는 가브리엘이 11장에서 예언적 역사에 대한 이상을 전하기 전에 미리 묘사된 다니엘의 경험을 보게 된다. 고레스는 종말의 때를 가리킨다. 이전에 다리오의 조카인 고레스는 벨사살을 죽인 다리오의 장군이었고, 이로써 70년 포로 생활의 끝을 표시했다. 이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영적 바벨론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겪은 1,260년의 포로 생활을 예표한 것이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오랜 기간의 가차 없는 박해 동안, 유배 기간에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로 포로 상태에 있었다." Prophets and Kings, 714.

1798년에 1,260년의 끝은 끝의 때를 표시했으며, 따라서 70년의 끝은 그 역사에서의 '끝의 때'를 표시했다. 벨사살의 죽음과 바벨론 왕국의 멸망 때 다리오와 고레스가 모두 나타나는데, 그 일을 수행한 다리오의 장군으로서 고레스가 다리오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9년 1월 20일 조지 부시 1세가 취임했을 때, 1989년의 첫 열아홉 날 동안은 레이건이 대통령이였다.

히데겔의 환상은 끝의 때에, 고레스 제삼년에 시작되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제11장의 예언적 역사를 풀어 주기 시작할 때, 그는 먼저 다리오 원년을 언급하는데, 이는 그가 다니엘에게 제시하려는 예언적 역사의 환상이 끝의 때의 마지막 시기, 곧 1989년에 시작됨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에 대해 더 많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 주리라. 이 일들에 관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외에는 없느니라. 또 나도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려고 썼느니라. 다니엘 10:21, 11:1.

1989년의 끝의 때를 나타내는 다리오의 첫해에 가브리엘이 '섰다'. 따라서 '끝의 때'에는 천사가 도착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1798년에 첫째 천사가 도착했고, 1989년에 셋째 천사가 도착했다. 2001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셋째 천사의 인침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1989년에 셋째 천사가 도착한 그 운동은 끝의 때에 서 있는 가브리엘로 표현된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보여 주려 하며, 히데겔의 환상은 가브리엘이 제시하려는 '진리'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

10장 14절에서 가브리엘은 이미 다니엘에게 히데겔의 환상에서 자신이 다루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알려 주었다.

이제 내가 왔노니 네 백성이 후일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 10:14.

다니엘서 11장 2절은 1989년 마지막 때에 봉인이 풀린 지식을 나타내며, 그 지식은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밝힌다.

이제 내가 네게 진리를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는 아직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의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심히 부요하리라.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져서 모든 사람을 격동하여 헬라 왕국을 대적하게 하리라. 다니엘 11:2.

고레스는 1989년 이후의 두 번째 왕을 예표한다. 그는 메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이 제국은 메대와 페르시아로 대표되는 두 개의 뿔로 이루어진 말세의 성경 예언 속 왕국을 상징한다. 1989년, 끝의 때에 두 뿔을 가진 땅의 짐승의 왕국의 두 번째 왕 이후로, 아직 세 왕(클린턴, 마지막 부시, 오바마)이 있을 것이며,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한 한 왕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부시의 뒤를 이은 세 왕은 퇴임 후 부자가 되었고, 그것도 오직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부유했고 역대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었던 네 번째인 트럼프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출마하기 훨씬 이전부터 주로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예전에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대통령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었고,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 워싱턴과 트럼프 모두 비전통적인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대통령직에 올랐다.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전 주로 군 지도자였고, 트럼프는 기업가이자 방송인이었으며,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정치 경력이 전혀 없었다.

두 대통령은 강한 성격과 리더십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러한 특성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은 독립전쟁과 공화국 초창기에 금욕적이고 침착하며 자신감 있는 리더십과 통합적 존재감으로 알려졌던 반면, 트럼프는 리더십과 통치에서 단호한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과 트럼프 모두 상당한 논란의 인물이었지만, 그 이유는 매우 달랐다. 워싱턴은 널리 존경받았음에도 노예제에 대한 그의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로 당대에도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거친 트윗' 사용, 미국 우선주의 정책 결정, 그리고 그의 자기인식 등 수많은 논란으로 특징지어졌다.

가장 부유하며 여섯째 대통령은 세계화주의 용의 세력을 뒤흔들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11장 2절의 역사를 1776년, 1789년, 1798년의 시대사 위에 겹쳐 놓아 보면, 땅의 짐승의 마지막 대통령을 가리키는 추가 정보를 발견한다. 이는 예수께서 처음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1776년과 1789년으로 대표되는 처음 두 시기는 마지막 대통령이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이 될 것임을 두 증인으로서 증거한다. 트럼프는 레이건 이후 여섯 번째 대통령이었고, 여덟째 대통령으로서 그는 '일곱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 곧 여덟째 대통령은 미국이 그 짐승을 향한, 또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 때 통치할 것이다.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 때 집권하는 대통령은, 페이턴 랜돌프와 존 행콕에 의해 증언된 바와 같이, 일곱에 속한 여덟째여야 한다. 교황권은 일곱 가운데서 나온 여덟째 머리이며, 예언된 치명상을 받았다. 교황권의 형상이 되려면, 일곱에 속한 그 여덟째 대통령도 예언적으로 '상처를 입었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식별될 만한 예언적 표지를

지녀야 한다.

교황권은 용의 권세(프랑스)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 용의 권세는 바울이 '불법의 비밀(죄의 사람)'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던 때부터 교황권과 싸워 왔다. 이교의 용은 교황권이 권좌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었으나, 교황권은 538년에 권좌에 올랐다.

교황권은 시작부터 최후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용의 권세들과 맞서 싸운다. 교황권의 형상이라면 그 형상도 용의 권세와 싸워야 한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일곱에 속한 여덟째 머리인 교황권은 마침내 불에 사름을 당하고, 열 왕들에게 그 살을 먹힘을 당한다. 두 죽음(1798년과 마지막 때) 모두에서, 교황권의 짐승은 용의 권세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면, 여덟째 대통령 또한 미국이 전쟁을 벌였던 용의 권세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며, 1989년에 시작된 '끝의 때' 이후의 여섯째 왕은 모든 용의 권세들을 격동시킨 왕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배교한 개신교도였지만, 조지 부시 1세는 전형적인 글로벌리스트였다. 그의 유명한 발언 가운데 하나는 1988년 8월 18일 그가 이렇게 말하며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 나의 상대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아니면 세 번째 수단으로 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인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게 그가 반드시 써먹을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걸 알게 된다. 내 상대는 증세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배제하겠다. 그리고 의회가 나에게 증세를 요구할 것이고 나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들이 압박하고, 나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다시 압박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내 입술을 읽으시오: 새로운 세금은 없다."

용의 세력을 대변하는 자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그 공공연한 거짓말을 제외하면, 그의 가장 유명한 발언은 1990년 9월 11일 의회 합동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매우 현실적인 전망이 있는 세계. 윈스턴 처칠의 말대로, '정의와 공정한 경기의 원칙이 ... 강자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는 ...' 그런 '세계 질서'. 냉전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난 유엔이 창립자들의 역사적 비전을 실현할 태세를 갖춘 세계." 부시 시니어는 공화당원이라고 자처했을지라도 글로벌리스트였다.

빌 클린턴은 취임식을 링컨 기념관에서 거행한 첫 대통령이었는데, 이는 그가 링컨에게 등을 돌리고 내부가 프리메이슨의 상징들로 채워져 있는 워싱턴 기념탑의 오벨리스크를 마주 보았다는 뜻이다. 그가 헌법에 대한 충성을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마주 보기를 선택한 그 오벨리스크와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은, 링컨 기념관이라는 노예제 폐지의 상징에 등을 돌렸다는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녔던 예수회 대학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한 교수를 칭찬했던 그의 수락 연설과도 맞아떨어졌다.

그 교수인 캐럴 퀴글리는 1966년에 출판된 'Tragedy and Hope: A History of the World in Our Time'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정당하게도 널리 '글로벌리스트 사상의 성경'으로 여겨진다. 코란이 이슬람에 그러하듯, 알버트 파이크가 저술하여 1871년에 출간된 'Morals and Dogma of the Ancient and Accepted Scottish Rite of Freemasonry'가 프리메이슨의 비의적 가르침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해설로 간주되듯, 또는 'The Book of Mormon'이 후기 성도들에게 그러하듯, 퀴글리의 책은 글로벌리스트 철학의 성경이다.

클린턴이 코란의 무함마드를 칭찬했다면 대부분이 알았을 것이고, 그가 The Book of Mormon의 조지프 스미스를 칭찬했다면 역시 알았을 것이며, 또 일부는 알버트 파이크가 누구인지 알았겠지만, 클린턴이 퀴글리를 칭찬한 것이 자신의 글로벌리스트 의제와,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표하는 원칙들을 그가 거부한다는 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연설에서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다: "10대였을 때 나는 존 케네디가 시민으로서의 소명을 일깨우는 부름을 들었다.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의 학생이었을 때, 캐럴 퀴글리라는 교수가 그 부름을 더 분명히 해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미국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이유는 우리 국민이 항상 두 가지를 믿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 개인적 도덕적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캐럴 퀴글리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미국이 자국의 국가 주권을 유엔에 넘기는 것이었다. 클린턴은 민주당원, 글로벌리스트, 용의 대표자였다.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 조지 부시(아들)는 글로벌리스트였고, 그의 아버지 역시 공화당원이라고 표방하던 글로벌리스트였다.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두 사람이 서로 뜻이 맞지 않고서야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는가?"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진다. 빌과 힐러리 클린턴과 조지 부시(아들)가 함께 성사시킨 많은 일들을 추적해 보기만 해도, 그가 누구와 뜻을 같이했는지 알 수 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대통령에 선출되기 직전의 선거 유세에서 미국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2008년 10월 30일, 미주리주 컬럼비아에서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합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까지 불과 닷새가 남아 있다." 이 발언은 그의 2008년 대선 캠페인의 핵심 주제였던 "희망과 변화"라는 더 넓은 메시지의 일부로, 중대한 정책 개혁과 나라의 다른 방향을 향한 그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었다. 그가 나라를 이끈 방향은 글로벌리즘, 반백인, 낙태 지지, 탄소 연료 반대, 반미·친글로벌리즘, 다양성·형평성·포용, 비판적 인종 이론의 거짓 역사 등으로 대표되는 '용의 정책'이었다. 오바마는 단순한 지역사회 조직가가 아니었으며, 과거에도 지금도 '용의 세력'의 글로벌리스트 의제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형적인 현대 정치인과는 달리, 1989년부터의 기간에 재임한 다른 일곱 대통령들이 지킨 공약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공약을 지켰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목표에 전념했고, 그러한 시도를 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기득권층을 자극했다.

조 바이든은 자신이 또 다른 글로벌리스트가 아닌 무언가라는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가톨릭의 짐승은 용의 권세들과 지리한 전쟁을 벌였고, 미국이 교황권의 형상을 만들어낼 때 재임 중인 대통령은 예언적 필연에 따라 용의 권세들과 투쟁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제외한 생존 대통령들 가운데 누구도 용의 권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노골적인 글로벌리스트(용)들이고, 최근의 조지 부시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공화당원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리스트 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마지막을 처음과 함께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세상에도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대한 투쟁이 우리 앞에 임박해 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40년이 넘도록 임박하다고 선포해 온 사건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벌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 문제가 국가의 입법자들에게 강력히 촉구되고 있다.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문제는 국가적 관심사이자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우리는 이 운동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국면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위험을 경고하라는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수행해 왔는가?

일요일 준수 강제를 위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눈먼 이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성경의 안식일이 주장하는 바와 일요일 제도가 근거하고 있는 거짓된 토대를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 많다. 종교 입법을 지지하는 어떤 움직임도, 오랜 세월 양심의 자유와 줄곧 싸워 온 교황권에 대한 양보 행위일 따름이다. 일요일 준수는 소위 기독교 제도로서의 존재를 '불법의 비밀'에 빚지고 있으며, 그 강제 시행은 로마주의의 바로 그 초석을 이루는 원칙들을 사실상 승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요일 법을 제정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부의 원칙을 그렇게 저버리게 될 때, 이 행위로 인해 개신교는 교황주의와 손을 잡게 될 것이며, 그것은 오랫동안 다시 적극적인 전제정치로 뛰어오를 기회를 간절히 노려 온 그 폭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국가 개혁 운동은 종교 입법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완전히 발전하면 과거 시대에 만연했던 것과 같은 불관용과 억압을 드러낼 것이다. 그 당시 인간의 회의체들은 신의 특권을 가로채어 전제적 권력 아래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고, 그들의 명령에 반대한 이들에게는 투옥과 추방, 그리고 죽음이 뒤따랐다. 만일 교황주의나 그 원리가 다시금 입법을 통해 권력을 얻는다면, 대중적 오류에 굴복하여 양심과 진리를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향한 박해의 불길의 다시 타오를 것이다. 이 악은 실현 직전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위험들을 보여 주는 빛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겠는가? 이 중대한 문제를 아무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이 맞닥뜨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는가?"
증언, 5권, 711, 712.